

GM, 세계 전기차시장 정조준… “기술력 바탕, 테슬라 잡을 것”

브라이언 맥머레이 GMTCK 사장
“GM, 조직전반 신속전환에 투자
플랫폼·VR 기술이 ‘혁신의 중심’
트레일블레이저·CUV, 가상설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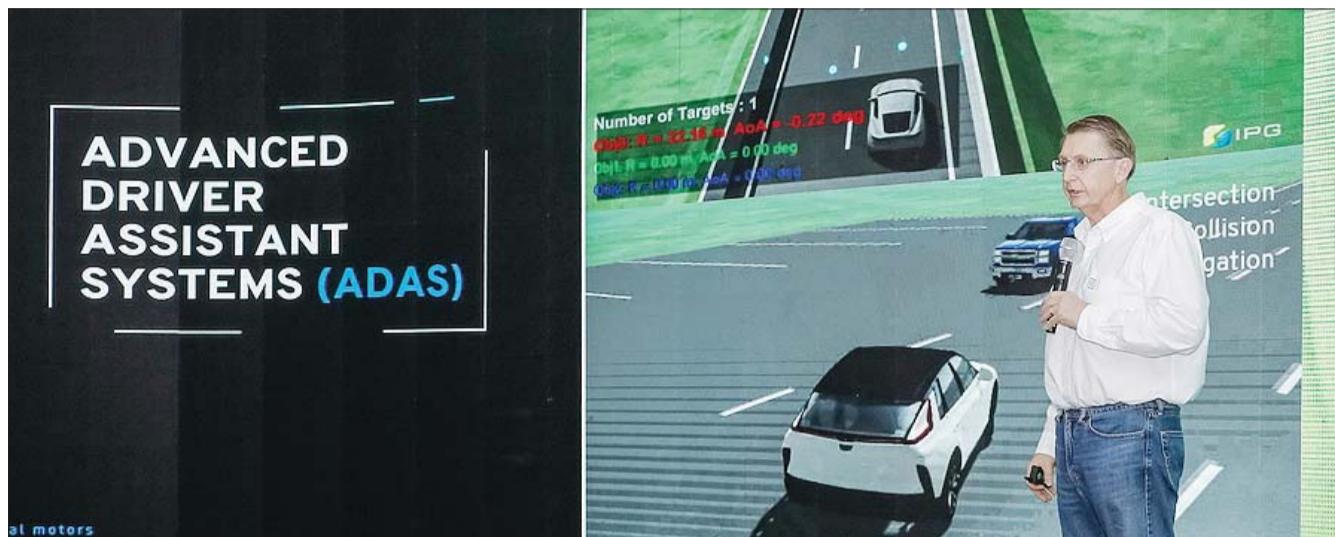
“미래 모빌리티 시장에서 테슬라 따라잡을 것.”

GM이 글로벌 전기차 시장 주도권 잡기에 속도를 높이고 있다.

글로벌 자동차 업체들이 친환경차와 자율주행차로 전화를 위해 치열한 기술 경쟁을 펼치고 있는 가운데 GM은 전사적 역량을 앞세워 시장 선점에 나서고 있다. 2030년 내연기관차 퇴출을 추진하는 자동차 시장의 움직임이 가속화되고 있는 가운데 GM은 자체 기술을 바탕으로 2025년 테슬라를 따라잡을 것이라고 공언했다.

브라이언 맥머레이 GM테크니컬센터코리아(GMTCK) 사장은 지난 10월 28일 대구 엑스코에서 열린 ‘2022 대구 국제모빌리티’에서 “GM의 전기차 플랫폼 얼티엄과 소프트웨어 플랫폼인 ‘얼티파이’는 GM이 자랑하는 소프트웨어 기술이다.

또 맥머레이 사장은 모빌리티 산업의 기술 발전으로 효율성과 개발 속도는 빠르게 전개되고 있음을 강조했다. 맥머레이 사장은 “GM은 조직 전반이 보다 빠르게 전환하는데 시간과 노력을 쏟고 있다”며 ‘전기차 플랫폼’과 ‘가상 현실 기술(버추얼 엔지니어링)’이 혁신



브라이언 맥머레이 GMTCK 사장이 지난 28일 대구 엑스코(EXCO)에서 ‘2022 대구 국제모빌리티’ 2일 차 기조 강연을 진행하고 있다.

특징이다. GM 산하 모든 브랜드에서 새롭게 나오는 전기차는 이 플랫폼을 기반으로 만든다. 고객 경험을 기반으로 GM이 자체 개발한 소프트웨어 플랫폼인 ‘얼티파이’는 GM이 자랑하는 소프트웨어 기술이다.

또 맥머레이 사장은 모빌리티 산업의 기술 발전으로 효율성과 개발 속도는 빠르게 전개되고 있음을 강조했다. 맥머레이 사장은 “GM은 조직 전반이 보다 빠르게 전환하는데 시간과 노력을 쏟고 있다”며 ‘전기차 플랫폼’과 ‘가상 현실 기술(버추얼 엔지니어링)’이 혁신

의 중심에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GM TCK에서 연구&개발하고 한국지엠에서 양산하는 쉐보레 트레일블레이저와 내년 초 출시될 크로스오버유ти티차량(CUV)도 가상 설계로 완성됐다. 그는 “가상현실 기술이 향후 미래 모빌리티 기술 혁신에 필수적인 역할을 수행 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정확하고 빠르게 차량을 개발할 수 있고, 특히 자율주행차 기술 개발에서는 높은 정확도로 모든 상황을 빠르게 식별·대응해 자율주행 프로그램의 기본이 되는 시스템 학습도 가속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

앞서 최근 메리 바라 GM 최고경영자는 “테슬라 추월을 위해 GM은 2030년까지 북미와 중국에서 50% 이상 전기차 생산 능력을 갖추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특히 맥머레이 사장은 GM이 글로벌 완성차 업체와 경쟁을 위해 한국의 역할은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GMTCK에는 약 3300명의 엔지니어가 근무하면서 미국 GM의 신차와 엔진, 변속기 기술, 전기자동차 등 핵심 기술을 개발하고 있다. 디자인에서 최종 차량 검증, 생산 기술에 이르기까지 차량 개발이 가능한 시설을 갖추고 있다. 약

얼티엄은 2020년 GM이 자체 개발한 모듈식 플랫폼이다. 뛰어난 범용성이

500명 이상의 한국인 엔지니어는 얼티엄 플랫폼 기반의 전기차를 포함해 약 20개 이상의 글로벌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다. GM은 미래 모빌리티 기술 발전을 위해 해당 연구인력을 2배로 늘릴 계획이다.

맥머레이 사장은 자신이 경험한 한국 엔지니어들에 대해 “어느 곳보다 속도 면에서 우위를 갖고 있고, 혁신에 대해서도 높은 수용성을 보이고 있다”며 “특히 집중력과 효율성 측면에서도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어 GMTCK는 GM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연구개발 기지의 가능성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GM의 자율주행 관련 기술도 조만간 대중에게 공개될 예정이다. GM은 차 세대 운전자 보조시스템(ADAS) ‘슈퍼 크루즈’ 기능이 탑재된 차량을 올해부터 내년 중반 사이 출시하고, ‘핸즈 프리’ 수준을 자랑하는 자율 주행 기술이 탑재된 ‘울트라 크루즈’는 내년부터 제작될 캐딜락의 플래그십 전기차 셀레스틱에 적용될 예정이다.

/양성운 기자 ysw@metroseoul.co.kr
 유튜브(메트로신문) 동영상 제공


샌드박스로 모빌리티 등 162건 사업화 물꼬

대한상의, 규제샌드박스 현황 분석 한국에만 있는 갈라파고스 규제 해결

규제 샌드박스가 국제적 흐름과 단절되어 한국에만 있는 ‘갈라파고스 규제’를 푸는 해결사 역할을 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왔다.

대한상공회의소 샌드박스 지원센터는 31일 ‘규제 샌드박스 승인과제와 규제현황 분석’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는 2020년 5월부터 2022년 10월 까지 지원센터를 통해 규제 샌드박스 승인을 받은 과제(184건)를 전수분석하고 규제 샌드박스의 의의와 제언을 담았다.

규제 샌드박스는 낡은 법과 제도에 막힌 혁신 사업자에게 특례를 부여하는 제도다. 대한상의는 지난 2020년 5월부터 약 900일간 규제 샌드박스 민간 접수 기구로 활동하며, 기업들의 규제 샌드박스 통과를 지원하고 있다.

보고서는 규제 샌드박스가 국제적 흐름과 단절되어 한국에만 있는 ‘갈라파고스 규제’를 푸는 해결사 역할을 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대한상의 규제 샌드박스 승인과제(184건) 중 88%(162건)는 해외에선 가능하지만 국내에선 불가능했던 사업모델로 분석됐다.

보고서는 “한국에는 국제적 흐름과는 맞지 않는 규제 장벽으로 인해 시작 조차 하지 못한 사업모델이 많다”며 “규제 샌드박스는 개점휴업 중이던 사업들을 우선 허용해 글로벌 경쟁에 뛰어들 수 있도록 돋고 있다”고 말했다.

대표적인 사례는 ‘비대면 의료’다. 미국, 영국, 유럽 등 선진국 중심으로 시작된 비대면 진료 사업은 COVID-19를 계기로 전 세계에서 주목받았지만, 한국에선 규제로 인해 사업이 불가능했다.

모빌리티 분야에서도 ‘갈라파고스 규제’를 해결한 사례가 많았다. 자동차 강국인 미국, 독일 등에선 차량 소프트

웨어를 무선 업데이트할 수 있는 ‘OTA 서비스(Over-the-Air)’, 자율주행차량의 성능을 높일 수 있는 ‘3차원 정밀지도 서비스’ 등이 가능했지만, 한국에선 사업이 어려웠다.

규제 샌드박스가 신사업에 ‘기회의 문’을 열어 준 것으로 보고서는 분석했다. ▲모빌리티(37건) ▲공유경제(26건) ▲의료(23건) ▲에너지(20건) ▲스마트기기(17건) ▲플랫폼(15건) ▲푸드테크(15건) ▲로봇/드론(10건) ▲방송/통신(8건) ▲펫 서비스(6건) ▲기타(7건) 순으로 많았다.

최현종 대한상공회의소 샌드박스지원팀장은 “규제법령이 많고 이해관계자 반대로 신사업 진출이 어려운 모빌리티와 의료 분야 규제 특례를 요청하는 경우가 많았다”며 “신산업이 생겨나고 있는 공유경제 분야에서도 불합리한 규제를 적용받아 샌드박스를 찾은 사례가 다수”라고 말했다.

/최빛나 기자 vitna@

플라이강원, 日 나리타 공항 신규취항

양양-나리타 노선 주 4회 정기운항

플라이강원이 일본 도쿄나리타 공항에 신규 취항했다.

플라이강원은 지난 30일 오전 11시 25분을 시작으로 나리타 노선 운항을 알렸다. 취항편은 186석의 B737-800 항공기에 160여명의 승객이 탑승했으며 일본노선에 대한 높은 기대감을 입증했다. 취항식은 양양국제공항 2층 대

를 출발해 오후 4시 55분에 양양에 돌아오는 일정으로 운항한다. 특별히 금요 일에는 연차를 사용해 여행하는 여행객들의 편의를 위해 오전 7시 55분에 양양을 출발해 나리타 국제공항에 오전 9시 55분에 도착하는 항공편을 운항한다고 플라이강원 관계자는 전했다. 나리타 국제공항에서 철도를 이용하면 1시간 이내에 도쿄 도심에 도착한다.

일본으로의 첫 취항을 기념하기 위해 플라이강원 홈페이지에서 ‘10Plus’ 이벤트가 진행 중이다.

/허정윤 기자

제주항공, 서울역 도심공항터미널 재개

인천 출발, 일본노선 예약승객 대상

제주항공 탑승객이 이용할 수 있는 서울역 도심공항터미널이 오는 11월1일부터 운영을 재개한다. 코로나19로 운영을 중단한지 2년7개월만이다.

서울역 도심공항터미널 탑승수속 서비스는 제주항공의 인천 출발 일본 노선을 예약한 승객이라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인천~도쿄(나리타)/오사카/후쿠오카/삿포로 노선과 오는 11월22일부터는 인천~나고야 노선, 12월1일부터는 인천~오키나와 노선을 예약한 승객이 이용할 수 있다.

도심공항터미널에서 탑승수속을 마친 뒤 법무부 출입국 관리사무소 출국수속까지 끝내면 무거운 수하물을 공항까지 가지고 가지 않아도 된다. 터미널에서 연결된 공항철도로 공항까지 이동할 수 있어 교통도 편리하며,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면 도심공항터미널 이용객 전용 통로로 빠르게 출국할 수 있다.

도심공항터미널 운영시간과 발권 수 속 제한시간이 있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탑승수속 서비스는 오전 5시20분부터 오후 7시까지 운영되며, 출국수속 서비스는 오전 7시부터 오후 7시까지만 이용할 수 있다.

/허정윤 기자 zelkova@

LS일렉트릭 ‘전력 중개사업’ 본격화

‘재생에너지 발전량 예측제도’ 참여

LS일렉트릭이 전력 중개 사업을 시작한다.

LS일렉트릭은 전력거래소의 ‘재생 에너지 발전량 예측제도’에 참여한다고 31일 밝혔다.

재생에너지 발전량 예측제도는 신재생에너지 수요와 공급 균형을 맞추기 위해 마련된 조치다. 중개사업자가 모집한 집합자원 이용률이 10% 이상인 발전량에 대해 예측 오차율이 8% 이하인 경우 정산금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인공지능과 자동제어기술로 다양한 분산 에너지원을 모아 하나의 발전소처럼 운영하는 가상발전소 육성을 위한 첫단계다.

LS일렉트릭은 지난 8월 전력거래소



LS일렉트릭 관계자가 발전량 예측 모니터링을 진행하고 있다.

에 중개사업자로 등록하고 최근 등록 시험을 통과하며 소규모 전력 중개사업 자격을 획득한 바 있다. 재생에너지 발전량 예측제도 참여를 위해 총 23MW 자원을 확보했다.

/김재웅 기자 juk@